

에니어그램 영성이란 무엇인가?

김 영 운 (목사, 공동체성서연구원장)



들어가는 말

에니어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관련 서적이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에니어그램의 스승들이 옛부터 경계하던 측면이 나타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요. 각별한 조심이 필요함을 느낀다.

최근에 우리말로 나온 책들은 대부분이 번역서인데 거기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 대부분이 성격 유형이나 성격 발달에만 치우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에니어그램을 왜곡시킬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에니어그램을 현대사회에 전수하기 시작한 굴지예프(Georges Ivanovich Gurdjieff, 1866-1949)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격 또는 인성(personality)을 발견하거나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명백히 가르쳤다. 흔히 성격이란 말로 이해하는 것을 그는 세분화 시켜서 거짓 인성(false personality)과 참된 인성(true personality), 그리고 본성(Essence)을 찾기 위해 영성 수련을

하는 수련인생(work personality)등으로 나누었다. 따라서 영성 수련을 통하여 사람은 본래적 존재(authentic being)로서 참된 나를 찾아 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또한 나를 세분화시키는데 여기에는 다섯 단계의 수준이 있다고 본다.

그 첫째는, 보통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써 수많은 나 (Many I's), 둘째는 관찰하는 나 (Observing I), 셋째는 기계적 삶에 저항하여 수련하는 나(Deputy steward), 넷째는 모든 나를 통제하는 나 (Steward), 그리고 다섯째는 영구적인 나로서 참된 나 (Real I)이다.

이와 같은 구분을 다른 개념으로 말하자면 의식상태의 네 단계나 인간의 일곱 수준으로 나누는데, 그 단계의 첫째는, 잠자는 상태, 둘째는 선잠 깬 상태, 셋째는 자기를 의식하는 상태 (Self-consciousness), 넷째는 객관적 세계를 의식하는 상태 (Objective consciousness)로 서술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잠자는 상태에 있다. 이 때의 사람들은 기계적인 삶을 살거나 환경이나 외부조건에 의하여 떠밀려 가거나 저항하며 살아간다. 본능을 따라 살기를 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 얻은 습관이나 인상이나 학습 등의 축적으로 형성된 성격에 맞춰서 살아간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일컬어 '불난 집에서 자는 사람' 이라든가 '자기라는 감옥에 갇힌 포로'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만 세 살 때가 절정이고, 그 이후로는 내리막길이다." (David Kossoff) 라는 말이 있다. 나서 세 살 때까지는 본성이 크게 뒤틀리지 않고 살다가 그 이후로는 가족이나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기 방어와 보존의 본능이 작용하면서 성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성격이 만 여섯 살이 되면서 확정된다. 그 뒤로는 죽을 때까지 그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주어진 성격 안에서 건강해지느냐 불건강해지느냐, 즉 통합의 상태로 가느냐 퇴화 내지는 퇴행 상태로 가느냐 하는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둘째로, 선잠 깬 상태 (half-asleep , half-awake)는 자신이 잠

자는 상태를 느끼는 것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이런 상태로 살아간다. 상상의 세계로 빠지면서 현실 도피를 하거나 모르는 것이나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거짓말을 곧 잘 하고, 되지도 않을 것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간다.

셋째로, 자기를 의식하는 상태는 보통 극히 위험한 상황이나 극단적인 감정 (예를 들자면, 비탄) 상태에서 생긴다.

넷째는, 객관적 의식의 상태이다. 극히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는 이 상태의 경우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진실을 꿰뚫어 본다. 우주적 의식이기도 하고 신적인 의식이라고도 표현되는 경우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사람의 일곱 수준을 생각하게 된다. 제1 수준의 사람은 본능 중심으로 생각한다. 물리적인 사람이다. 제2 수준의 사람은 감성 중심으로 생각한다. 감성적인 사람이다. 제3 수준의 사람은 지성 중심으로 생각한다. 지성적인 사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한다. 제4 수준의 사람은 균형 잡힌 중심을 가지고 산다. 제5 수준의 사람은 수정같이 명료화된 본성을 지닌다. 고등 감성 중심 (higher emotional center)과 영구적 나를 지니게 된다. 제6 수준의 사람은 제5 수준의 인간이 지닌 모든 자질에 덧붙여서 고등 지성 중심 (higher intellectual center)과 객관적 의식을 지닌다. 초인적 힘을 발휘하는 유형이다. 제7 수준의 사람은 제6 수준의 사람이 갖는 모든 것 외에 모든 의식의 상태를 통제한다.

이와 같은 인간 이해를 전제로 하고 에니어그램을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인간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개발하는데서 그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식 단계에 있어서 잠자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또는 포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성격 발달을 논해봐야, 여전히 잠자는 상태나 포로 상태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니어그램은 성격심리학(personality psychology)의 범주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성 심리학(spiritual psychology)의 체계로서 배워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

상을 회복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마땅하다.

에니어그램의 목표

굴지예프(Georges Ivanovich Gurdjieff)는 일찍이 말하였다. “모든 사람은 목표를 세워야 한다.” 물론 이 목표는 본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함이고, 그의 가르침으로 설명하자면, 객관적 의식의 상태를 지향하며, 적어도 제6 수준의 사람의 수준을 바라보며 영성 수련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목표를 향해 감에 있어서 ‘의식적 노력’(conscious effort)과 ‘자발적 고난’(사서 고생하는 것, voluntary suffering)이 필요하기에 이를 꼭 배워야 함을 그는 역설한다.

영성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총(free gift of Grace)을 믿고 살지만 우리의 몸부림치는 노력 즉 분투노력(committed struggle)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투노력과 자발적 고난을 배우며 수행해 나 갈 때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영성 신학에서 말하는 분별과 결단의 배합(combination of discernment and commitment)이라 할 수 있다.

의식적 노력과 함께 요청되는 것이 의지이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에니어그램을 좁은 의미에서 성격 유형을 알거나, 세계에 대한 이해나 지식은 그대로 있으면서 성격을 개발한다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인간의 내적 개발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는 지식과 존재가 동시에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과 존재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앞지르거나 압도하면 내적 개발은 얼마 안 가서 멈추고 만다. 자기 지식(self-knowledge)을 위하여 자기를 공부하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위하여 세계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체와 연결될 없이 부분을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무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한다. 비록 완전히 아는 것은 아닐지라도, 현재 내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일 뿐,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아는 온전한 지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옛부터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들어왔다. 학교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부터, 그것이 좋은 말인 줄은 알았으나, 어떻게 해야 자신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세하게 가르쳐 준 일이 없다. 이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주체는 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세계도 잘 모르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내가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부족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흔히 생각하고 말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유와 건강’을 말한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원하면서도, 실제로 불행을 자초하거나, 있던 행복마저 깨거나 쫓아 버리는 일을 곧 잘한다. 마찬가지로 자유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공포나 욕망이나 불안 때문에 부자유해지는 경우가 다른 어떤 물리적 제약 때문에 당하는 부자유보다 더욱 심한 경우가 많다.

이토록 우리가 원하는 선은 이루지 못하고, 바라지 않는 악이나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대개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서 그런 불편이나 불행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 아니면, 그런 것 일일이 다 생각하기가 골치 아프니까 잊어버리고 살려는 듯이 쾌락에 빠지거나 물질적 충족감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인간의 본성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을 말하기 이전이라도, 인생을 기쁨과 보람으로 조화된 상태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온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더욱이 영성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함을 말하면서도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어떤 상태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 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 영성의 중요성은 알지만 영성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온전함에 이르도록 성숙시켜야 하는가는 모르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에니어그램 영성을 추구하는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길ियो,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와 의지대로 인간의 본성을 되찾는 것이다.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영성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체험'을 말로나 행동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을 성숙시키는 삶의 길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회복하며 살아야 할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치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온전함을 지향하는 삶을 두고 영성이란 말을 쓸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하여는 넓은 의미에서 영성수련이 필요하며 영성지도가 큰 도움이 된다.

영성신학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형성되어야 하듯이, 그 신자 안에서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교회력을 따라 살 때, 그리스도 예수가 성탄절에 탄생하여 현현절에 세례와 봉헌을 거쳐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그 이후 공생활을 하시고, 사순절에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모든 과정이 신자의 내면에서부터 구체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재현되며 재형성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적 형성을 포괄적으로 표현하여 영성이란 말을 쓸 수 있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신앙과 생활양식이 통전적으로 다듬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며,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삶을 민감하게 의식하며 성실하게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영성이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전적으로 닮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과 현실 속에서 이어지는 그와 같은 의식적인 노력과 자발적 고난을 포함하여 온전함의 영성이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온전함의 영성 또는 통전적 영성을 지향하며 에니어그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에니어그램은 영성 심리학의 체계로서 이해하고 배워야 한다. 영성적 차원에서 에니어그램은 인성을 깊이 이해하며,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성 유형을 바르게 알고, 인격 완성에 이르는데 도움을 준다. 에니어그램은 많은 책을 통하여 기초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기에 여기서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다만 영성을 가꾸어 나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설명하기로 한다.

에니어그램은 헬리어 ‘에네아스’(enneas) 즉 아홉과 ‘그람’(grama) 즉 ‘기록’이란 말의 합성어이다. 굴지예프(Georges Ivanovich Gurdjieff)에 의하면 우주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포괄적 상징이다. 그는 “넓게 말해서 에니어그램은 우주적 상징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식이 에니어그램에 포함될 수 있고, 에니어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그 모든 지식이 해석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다루는 에니어그램은 나 자신을 알고 세계를 아는 것, 즉 자기지식과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한다. 특히, 인성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에니어그램은 사람의 성격을 아홉 가지로 나눈다. 인성 유형은 오직 아홉 가지가 있을 따름이다. 누구라도 그 아홉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

에니어그램은 오랜 역사를 지닌 동방의 지혜로써 인간의 상

황과 인성 유형을 어떤 이론이나 체계보다도 정확히 표현해 줄 뿐 만 아니라 자아를 발견하고 인격을 완성시키는데 더 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준다.

에니어그램을 두고 ‘자기 발견의 여행’이라든가 ‘자기 발견의 지혜’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에니어그램의 기본과정을 세 단계로 말하자면, 첫째, 자신의 강박 충동(compulsion, 협박)을 발견하고, 둘째, 그 원인을 깨닫고, 셋째, 강박 충동을 극복하는 것이다.

에니어그램이 드러내 주는 핵심은 타고 난 은사나 장점을 오용 내지 남용하면 그것이 곧 단점으로, 그리고 강박 충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죄가 그렇듯이 강박충동 역시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에니어그램의 여로를 시작할 때, 우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만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단 문제를 정확히 발견하면, 강박 충동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며, 나아가서는 바른 선택으로써 자유인으로 성숙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에니어그램을 터득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좌절하는가를 점차 알게 된다.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고, 에너지를 가로막고, 마음속에 무엇이 공포심을 넣어주고, 무엇이 마음을 마비시키는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강박충동에 의하여 반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알게 된다. 따라서 에니어그램의 지혜가 성숙되면 될수록 자기발견과 자기의식이 성숙된다. 결국 에니어그램은 자유에 관한 지혜이며 철학일 뿐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건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통전적 영성의 길이다.

에니어그램의 기초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람의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사람들이 자유와 건강과 행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유와 건강과 행복을 원하는가, 원한다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얼마나 의식적인 노력을 특히 끊임없이 하는가, 그것이 문제다. 에니어그램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니어그램은 자기발견의 길이요, 자아발견의 여로이다. 에니어그램을 알면 자유와 건강과 행복이 보인다. 그리고 성취해 나갈 힘을 얻는다. 에니어그램을 배우게 되면, 먼저 깨닫는 것이 있다. 그것은 첫째,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포로'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아의 포로'이다. 자기 자신의 공포와 욕망과 강박충동에 사로 잡혀 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잠자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선잠을 깨지만 곧 다시 잠에 빠진다. 셋째, 자신이 갇혀있다는 사실과 의식이 잠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목표를 세우고 포로된 상태와 잠든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식적인 노력과 자발적 고난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과 과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에니어그램이다. 그래서 에니어그램을 두고 하는 표현이 '마스터 키'라고 한다. 에니어그램을 터득하면, 어떤 유형의 자물쇠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에니어그램에 의하면, 사람은 태어나서 6세가 되기까지 성격이 형성되고 확정된다. 그 이후에는 1번 유형이 2번이나 3번 유형으로 수직이동을 하면서 바뀌지 않는다. "세 살 적 버릇 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평생동안 성격이 수없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성격 안에서 수직이동을 하면서 건강, 평균, 불건강 등의 수준으로 바뀔 뿐이다.

만 6세 때 성격이 확정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태어나서 부모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무

리 잘 돌아봐도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입는다. 둘째,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사랑 받고 싶어하는 노력과 자기를 방어하려는 노력이 성격으로 발달한다. 셋째, 모든 사람은 어릴 적부터 자기 방어와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운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울든가, 떼를 쓰든가, 악을 쓰든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는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걱정이 되고 강박충동이 된다. 넷째, 이렇게 자기 생존과 방어의 전략을 세운 어린이는, 사람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속에서는 그 여섯 살짜리가 그 속에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반응한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어린이 에니어그램을 살펴본다.

- 1 번 유형은 나이에 비하여 책임감이 크다. 기대 이상으로 일처리를 잘한다.
- 2 번 유형은 또래 친구나 자매들을 돌봄으로써 어른들의 관심을 끈다.
- 3 번 유형은 항상 모든 일에 제일이어야 하고 모두가 자기를 좋아해야 한다.
- 4 번 유형은 아웃사이더로 느끼고, 민감하고 상상력이 높고, 외로움을 느낀다.
- 5 번 유형은 외판셈이고, 학구적이고,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질문이 많다.
- 6 번 유형은 또래 압력에 민감하고, 규칙에 순종하면서도 불안하고 심하면 반항한다.
- 7 번 유형은 활기차고, 말이 많고 재미있으며, 독창적이다.
- 8 번 유형은 일찍이 독립심을 보이며, 지휘나 명령을 잘한다.
- 9 번 유형은 조용한 아이이고,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 종종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띈다.

이상과 같이 만 6세 때 확정된 성격은 크게 9가지로 분류된다. 누구나 이 9가지 성격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된다. 어린이 에니어그램의 특징이 각기 어른의 성격 유형에 그대로 나타

난다. 다만, 어릴 적 보다 더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와 환경 속에서 살면서 특징이 표현되는 모양과 건강 상태의 차이에 따라 변화를 나타낼 뿐이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변해도 성격 유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늘 같은 반응이 나오고, 따라서 같은 실수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에니어그램에 의하여 자기 성격 유형을 발견하려 할 때 무엇보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의 단점들을 확인하는 것이다. 에니어그램 분석에서 자기 자신의 걱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기가 본능적으로 기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가 늘 습관적으로 쉽게 빠져드는 함정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짚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성격 유형에 따라 각기 '기피'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1번 유형은 분노를 기피한다. 화가 잘나니까 그것을 회피하려고 참다가 결국 화를 내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데 원인을 따지고 보면 '완전'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원했던 대로 그게 잘 안되니까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화가 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이란 개념을 '성숙'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에니어그램에 알맞는 회개이다. 이런 뜻에서 각 유형에게는 걱정이 '죽을 죄' 또는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도 불리운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해야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거듭나며 성화와 성숙의 길을 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게 되며 '평정'을 이루며 내적 평화를 얻는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여 매진하게 된다. 이런 뜻에서 볼 때 1번 유형은 단점을 확인함으로써 성취형으로 개혁자적 특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홉 가지 인성 유형에 대한 개괄적 소개

	유형	특성	기피하는 것	걱정	함정	회개	덕목
1	성취형	개혁자	분노	분노	완전	성숙	평정
2	협조형	협조자	필요	자랑	봉사	은총	겸손
3	성공형	지위 추구	실패	기만	능률	하나님의 뜻	신실
4	개인형	예술인	평범	시기	진정성	하나님과 일치	침착
5	관찰형	생각이 많은 사람	공허	인색	지식	섭리	초연
6	수호형	충실한 사람	일탈	공포	안전	하나님을 의지함	용기
7	이상형	팔방미인	고통	탐닉	이상 주의	창조-동참	맑은 정신
8	대결형	지도자	약함	오만	정의	뜨거운 동정심	소박
9	보존형	평화 주의자	갈등	나태	자기 비하	무조건적 사랑	근면

이제 에니어그램의 기초를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 유형을 발견하려면, 먼저, 자기가 가장 기피하는 것이 무엇이며 혈기가 끓어오르는 걱정에서 사로잡힐 때, 그것이 늘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특징적으로 유혹을 잘 받고 빠져드는 함정이 무엇인가 확인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성격유형을 발견하면 구체적으로 회개하며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